

문화 속에서 만난 佛敎

어머니 자궁은 우주만물의 생산·파괴자

모성 없는 여성들의 권력 승계 영화 '차이나타운'



일몰 처리 할 때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감정의 동요도 없는 엄마. 일영이 석현을 만난 후부터 차이나타운이 아닌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했음을 알아낸다. 일영에게도 예외란 없다.



“증명해 봐 네가 아직 쓸모 있다는 증명” “결정은 한 번이고 그게 우리 방식이야”

다 더 강한 것 같다. 여자들은 결정적인 순간과 중요한 순간에 변명도 하지 않고 더 강력한 결단을 내린다. 그리고 엄마가 엄마의 엄마를 죽이고 엄마의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일영도 비정한 대물림의 운명을 수행한다. 서사(敍事)만 보자면, <차이나타운>은 전형적인 노와르 필름의 공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냉정한 어둠의 세계에서 자란 주인공이 사랑에 빠진 뒤 두목을 배신한다는 줄거리는 식상하기 그지없다. 실령, 권력 승계라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해도 <차이나타운>은 단선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나타운>은 신선하게 느껴진다. 그 이유는 비정한 세계의 주인공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이고, 그 비정한 세계의 권력 승계가 여성에서 여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여성의 권력 승계라는 특이한 설정에 대해 한준희 감독은 “여자들이 남자들보

“마음 주제로 유학자와 스님의 소통 다뤄”

원각서예대전 대상 받은 청송 이민형 서예가



최근 천태종 제3회 원각서예문인화대전 대상을 수상한 이민형 작가(사진)는 매일 <반야심경>을 독경하고 108배를 올리는 독실한 불자다. 그래서일까. 하얀 도화지 위에 검은 글씨 속에는 수행을 통한 힘이 느껴졌다. 기교를 부리지 않은 글씨의 획 하나 하나는 고법(古法)의 충실함이 묻어났다.

이민형 작가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품에 안겨 절에 다녔다. 어려서부터 늘 스님들이 수행하는 모습을 보며 스님들이 세상사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그렇기에 이민형 작가가 조선 중기 불교와의 인연이 깊은 계곡 장유 선생의 글에 빠져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계곡 장유 선생은 양명학 전래 초기 이를 수용한 대표적 학자 중 한명으로 당시 명목적 교조주의를 비판하고 내면의 마음을 바탕으로 한 양지와 실천을 강조했다. 특히 이런 면에서 불교와의 회통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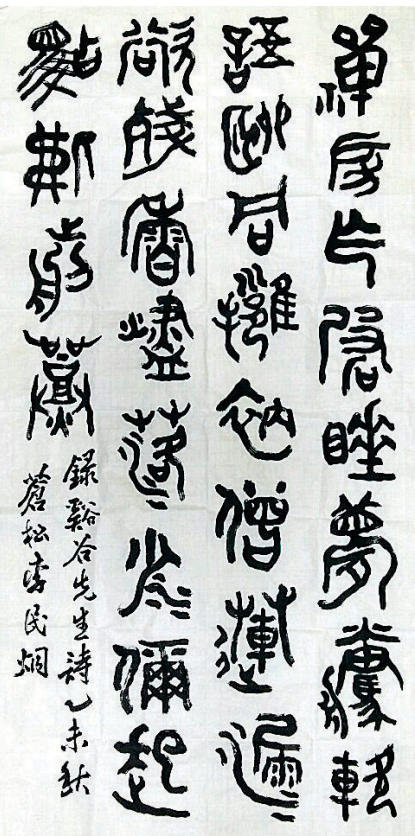
마음 다스림에 대한 글을 다수 남겼다. <복첩전운> 시 또한 장유 선생이 암자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을 찾아가 담소를 나누며 촛불이나 향불이 타들어 갈 때까지 나누던 말이다.

“당대의 문인이었던 장유 선생이 담담하게 스님들과 나누는 부분에서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 글 속에 있는 미묘한 맛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이민형 작가는 끝으로 “아직 부족한 면이 많기에 재주나 기교보다는 사람의 성품을 갖춘 후 진솔한 글씨를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항상 초심을 화두를 삼아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송(蒼松) 이민형 서예가는 대전 대 인문예술대학 서예학과를 졸업한 후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불교예술문화학과를 졸업했다. 진부서당 훈장으로 한국미술협회 서예분과 회원이다.

탄허대중사 선사 함양 전국 회화대회 대상, 원각 서예문인화대전 대상, 대한민국 서예대상전 우수상을 비롯한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개인전으로는 ‘문예향전 2010’ ‘삼허서연회원전 2011’ ‘가회필무전 2013’ ‘교학상상전 2014’ 등을 연 바 있다. 현재 하남시와 마포구, 강서구 등에서 서예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復疊前韻

다시 앞의 시에 접윤하다

禪房乍破睡 騰

선방에서 언뜻 잠 깨 몽롱한 정신으로

軟語聊同擁袖僧

납의 걸친 스님과 그냥 이런저런 얘기

蓮漏欲殘香燼落

연루도 다 끝나가 제만 남은 향불들

沙彌起點佛前燈

사미승 일어나서 불상 앞에 절동하네

- 豁谷 先生 詩

세계 명차의 발전상과 흐름 살펴볼 기회

명원문화재단, ‘2015명원 세계차박람회’...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B홀에서 ‘2015 명원 세계 차 박람회’를 개최한다. (사)한국다도총연합회와 (사)홍차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대한민국과 해외차 산업 100여 개 업체가 참여한다. 하동, 보성, 순천, 장흥 등 국내 주요 전통차들과 유럽·중국·대만·일본 등의 해외 명차가 소개된다.



2014년 코엑스에서 열린 명원 세계차박람회 모습

주최 측에서 대만의 여래진 대사를 비롯해 10개국 15명의 세계적인 차 전문가를 초청해 세계 차 시장의 흐름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먼저 개막식 식전무대에서는 한국 무용가 손정아 우리문화예술원 원장의 창과 춤, 가야금 병창 공연이 진행되며 개막식에서 ‘제20회 명원 국제 차 문화 대상식’이 진행된다. 시상은 학술·공

로·교육 세 분야로 수상자들에게 각 1000만 원의 상금이 전달된다.

본 행사에서는 ‘제20회 월드 티 아트 콘테스트’가 진행된다. 여기서는 다식과 다화 경연대회를 비롯해 차와 어울리는 음식

조리, 차실의 차탁을 수놓는 꽃의 조화 구성 등으로 승부가 진행된다. 대회장인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은 “차 안의 내 안의 차를 돌아보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Advertisement for BTN (Buddhist TV Network) featuring various programs like 'Buta's Path', 'World's Mind', and 'Prayer' with broadcast schedules.